

☞ 5면, 6면, 7면에 설교말씀 전문(全文)을 게재

세계의 종교를 물거품 만드는 학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있어

찬송: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이 건너편 강 언덕에
-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말씀:
사람 속에 악한 마음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악한 마음이 왜 있는지? 선한 마음은 왜 있는 건지? 하는 것을 여러 분들은 잘 알죠? 잘 알아요? 몰라요? 악한 마음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마귀의 영이 하나님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원래는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이었던 고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가 사람 속에 생긴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마귀가 되면서 악한 마음이 조성됐고, 원래는 선한 마음이었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주체 영이었으나 이제 마귀의 영이 6000년 전에 인간의 조상 하나님의 영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대로 악한 마음이 6000년 전에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고로 사람의 악한 마음은 바로 마귀의 마음이고, 마귀의 영이요, 이제 그대로 사람 속에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영이고 영원영원 전서부터 영원무궁토록 이제 그대로 살아온 경향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선한 마음이고로 이제 그대로 선한 마음은 영원영원 전서부터 존재했지마는 악한 마음은 6000년 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 이제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마귀의 영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이 사실을 이 세상 학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학문의 뿌리

그런고로 사람이 왜 마음이 있는지? 사람이 왜 생각이 있는지? 이제 이것도 모르면서 학문을 논하고 있으니가 바로 이제 그 학문은 바로 뿌리가 없는

학문이요, 이제 학문의 정의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을 그려놓은 것이 학문인데, 인간의 마음을 그려놓은 것이 학문인데 바로 학문의 뿌리라면 바로 이제 그대로 마음이고,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이거를 모르면 바로 학문의 뿌리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런고로 이제 그대로 학문 중에도 가치가 있는 학문이 있고 가치가 없는 학문이 있고 이제 그대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그린 것이요, 이제 그대로 그 마음이 바로 마귀의 마음일 때는 바로 마귀의 학문이 되고 이제 그대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일 때는 바로 하나님의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학문이 없었다, 이 세상에는 이제 그대로 종교가 없었다는 말씀을 시간시간이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람 속에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이고로 마귀의 학문은 있었지만 바로 진리의 학문은 없었다고 이 사람이 논하는 말이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죠?

그런고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이고로 그런고로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제 그대로 피가 썩고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제 늙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인 것을 이제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히 안다면 바로 이제 그대로 죽음의 원인만 제거하면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는 거죠? 그런고로 죽음의 원인이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고로 그런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을 제거하면 바로 죽을 수가 없고, 늙을 수가 없고 이제 병 걸릴 수가 없고 이제 그대로 고통을 당하려 당할 수가 없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학문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학문을 모르고 있는 거죠?



메시아(Messiah) 조희성님
△ 본문 말씀을 설교하시는 당시에 촬영한 모습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학문을 모르고 있는 고로 그런고로 사람이 왜 늙으며,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며, 사람이 왜 병 걸리며, 이제 그대로 사람이 왜 죽는 것을 이것을 모르고 있는 고로. 그런고로 오늘날 이것을 가르쳐 주고 알려 주고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학문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고로 오늘날 이제 그대로 사람이 왜 죽는지? 이제 그대로 사람이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왜 있는지? 이것을 오늘날 학자들이 알아? 몰라?

스스로 죽기를 싫어하면서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왜 있는지? 이제 또한 사람이 죽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바로 사람이 죽는 것은 늙어서 죽고, 사람이 죽는 것은 병 걸려서 죽고, 차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말하고 있죠? 무슨 재난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우연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는다고 해요? 죽을 때가 돼서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연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죽는 원인과 죽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이제 죽는 원인이 없이 죽는다는 것은 말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죽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죽는 원인을 이 세상 학자들이 알아? 몰라? 모르고 있죠? 이 세상 학자들이 사람이 죽는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무식해서 모르는 거야? 무식해서 모르는 거야? 무식해서 모르는 거야. 아시겠어요? 바로 죽는 원인은 이제 그대로 다른 게 아니고 피가 썩어서 죽는데 피가 왜 썩느냐 하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영이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피를 썩게 하는 마음이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이제 성경상으로 말하면 선악과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이고 그런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생각을 조종만 하면 바로 피가 썩어, 안 썩어? 피가 썩는 거죠?

나이 먹어서 늙는다고 알고 있는 학문은 잘못된 학문

그런고로 사람이 근심 걱정만 하면 사람이 얼굴의 기미가 썩어? 기미가 안 썩어? 기미가 시커멓게 썩어? 이것은 바로 근심, 걱정하는 순간 피가 썩고 피가

썩으면 바로 썩은 피가 모세혈관에 축적된 현상이 시커멓게 기미가 끼는 현상으로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죠? 그런고로 시커멓게 기미가 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제 그대로 뭐냐 하면 이제 그대로 오늘날 근심 걱정을 하면 바로 피가 썩어서 이제 썩은 피가 모세혈관에 축적된 현상이 바로 기미가 낀 현상이고로 근심, 걱정만 하면 바로 피가 안 썩는다는 증거야? 피가 썩는다는 증거야?

근심, 걱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나면 바로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을 되게끔 욕심부리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근심, 걱정이죠? 그래서 바로 욕심 중의 욕심이 근심, 걱정이죠? 욕심 중의 욕심이 근심, 걱정이고로 욕심만 부리면 피가 썩는다는 증거야? 욕심부리면 피가 안 썩는다는 증거야? 피가 썩는다는 증거야? 그 욕심부리는 순간 피가 썩고, 피가 썩으면 바로 늙고, 피가 썩으면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발생돼 가지고 발생된 병균이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병을 일으켜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게 돼? 안 잃게 돼? 생명까지도 잃게 되죠?

그러나 그 피가 썩는 것은 피가 썩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야? 뼈뺀 답변이야? 정확한 답변이죠?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늙는 거야? 피가 썩어서 늙는 거야? 피가 썩어서 늙고 있는데 오늘날 이 지구 땅 위에 전 세계 만민들이 피가 썩어서 늙는다고 알고 있어? 나이가 먹어서 늙는다고 그래요? 나이가 먹어서 늙는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 잘못된 학문이야? 바른 학문이야? 잘못된 학문이죠?

피가 썩으면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못 해

그런고로 이제 오늘날 피가 썩어서 늙고, 피가 썩어서 병 걸리고, 피가 썩어서 죽는 것은 바로 피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판단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올바른

판단을 내려요?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차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재난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해서 죽는 수가 많아? 안 많아? 많죠?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죽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는 고로 그런고로 이제 그대로 올바른 생각을 못 하는 까닭은 피가 썩어서 그래요? 안 썩어서 그래요? 피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피가 썩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피가 썩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고로 그런고로 죽는 고로 그런고로 죽는 그 원인은 피가 썩는 데 있는 거야? 이제 그대로 피가 안 썩는 데 있는 거야? 피가 썩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썩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영이 되는, 사망의 영이 되는, 바로 죽게 하는 마음이 되는 나라는 의식이 죽음의 원인이야? 나라는 의식이 영생의 원인이야? 나라는 의식이 죽음의 원인이야. 아시겠어요?

사람이 평생 동안 사자귀신한테 끌려 다니다가 마지막에 무덤으로 기어 들어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그 끌고 다니는 사자귀신만 죽어서 없애버리면 사람이 무덤에 갈까? 안 갈까? 무덤에 안 가.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그 사자귀신을 죽이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사자귀신을 죽이는 하나님의 영이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부처님 도는 자유하고 평등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정도니라

불경 속에 기록된 걸 다시 한번 읽어 줄게. 열반경 8권 77페이지 "감로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한다." 열반경 9권 90페이지 "감로의 광명이 사람의 탈구멍으로 들어가면 성불한다." 하나님이 된다. 이 소리죠?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되는 방법이 이제 그대로 불경 열반경 바로 8권 77페이지에도 있고, 열반경 9권 90페이지에도 정확하게 쓰여 있죠?

6면에 계속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삼손의 미남계(美男計)

삼손이 소라 성읍에서 태어나서 청년으로 성장하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삼손에게 지혜와 초인적인 힘을 축복하셨습다(사13:24).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삼손은 작가는 단지파 기업을 지키기 위해 크게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을 나이에 이르자, 그는 지체없이 단지파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단의 진지, 마하네단으로 갔습다. 마하네단은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위치했습다. 단지파의 군영이 있는 마하네단에서 삼손은 갖 입대한 장정들을 훈련시키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를 볼 수 있었습다(사16:31).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시고 삼손을 주장하시니(사13:25), 삼손은 동료 훈련병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략을 갖추었고 백병전에 능한 장수로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20여 년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이제 임신하

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전해준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단지파 백성들도 기쁨이 장대하고 엄청나게 잘 생긴 미청년인데다가 과력과 지략을 두루 갖춘 삼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점지하신 사사(士師, judge)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다.

삼손의 출중한 용모와 뛰어난 자질로 인하여 그는 사윗감으로서 선망의 대상에 올랐습다. 모든 일들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묘약으로 삼손을 미남계(美男計)로 활용하고자 했습다(사14:4). 단지파 기업의 땅에 단나 성읍이 있었는데, 단나 성읍은 삼손이 태어난 고향 소라 성읍에서 서쪽으로 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다. 평원 지대에 있는 단나 성읍에는 밀밭과 포도원 등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생계

《9장 사사시대》

7절: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손 이야기 ④



곤란을 겪는 자들이 단나 성읍에 들어와 농사 일을 거두고 품앗이로 먹을 양식을 받아 갔습다. 블레셋 사람들을 단지파 기업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는데, 일손이 부족했던 단나 성읍의 단지파 사람들의 지주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용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어 단나 성읍의 단지파 백성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농토를 다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을 섬겨야 될 정도로 약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심지어 단나 성읍에 거주하는 단지파 사람의 지주들 사이에는 일꾼으로 부리던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는 경우가 횡행하였는데, 이것은 이방인들과 파를 섞는 것을

금지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에 저촉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제 단지파의 기업에서 단나 성읍이 전쟁도 치러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단나 성읍에서 추수기에 수확된 엄청난 곡물과 포도와 같은 과일은 소래 골짜기를 넘어 남쪽 블레셋 진영으로 반출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던 단지파 입장에서 마지 아군의 군량미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 적국으로 보내지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소래 골짜기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읍바 남부 13km 지점의 지중해 연안까지 이르는 골짜기로써 북방의 단지파 진영과 남방의 블레셋 진영을 갈라놓는 중요한 철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단나 성읍이 그러한 철책과 같은 소래 골짜기를 무너뜨리고 블레셋의 진출을 돕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미국노와 같은 단나 성읍의 지주들 응징하기 위해서 먼저 단나 성읍에 지주의 딸을 미남계(美男計)로 끼고서 지주의 사윗감으로 낙점 받는 데까지 차질없이 진행했습니다. 그 지주

의 딸, 단나 여인은 블레셋 사람 어머니와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으로서 양국의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블레셋 말을 할 줄 몰랐던 삼손은 이스라엘 말을 구사하는 단나의 여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 1절: 삼손이 단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말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단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말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말들 중에서 네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형제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나니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 4절: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